

## 하동진교 119 소방대원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회갑을 넘어 지내는 동안 내 잘난 맛에 살아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일에 맡은바 책무대로 제대로만 하면 남의 도움과 지원 없이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없는 줄만 알고 또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며, 포용하고 이해하고  
봉사하며, 더불어 사는 양반님네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사건을 겪고 보니 내생각과 행동의 아둔함에 그저 부끄러운 생각이  
이제야 조금씩 드는 것이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야 철이 들어서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돌아가신지 십년이 넘었지만 부친의 암투병시 응급상황에서 몇차례 119를  
불렸고 그 즉각적인 처리에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의 의무와 책무로만 여겨왔지  
그렇게 가슴속에 우러나는 진정한 고마움이 아니었고 피상적인 감사함을 느낄 뿐이었  
습니다.

그땐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렇게 절실히 없었고 아는 병  
이라 예상가능한 일이었기에 진정한 가슴속에 우러나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던 같  
습니다.

2018년 4월 3일 오전 11:10 경 고향 이웃집 아지매로부터 회사에 근무 중인 나에  
게 긴급한 전화 한통이 울려왔는데,

구십이 넘은 모친과 지적장애자인 누님과 함께 고향집에서 사시면서 심장 판막이상으  
로 심장 약을 장복하고 계신 모친이 지혈이 되지 않아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다고  
다급하게 전화가 온 것이었다.

아! 이젠 끝이구나 심장에 드디어 이상이 와 피까지 흘리신다니 이젠 마직막이구나  
좋지 않은 상상과 예단을 하면서 몇해전 경험을 되살려 119에 도움을 청해 모 대학  
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하동 고향집에서 진주까지 거리는 약 40키로 응급실 도착시간이 12시5분경 도움요  
청하고 응급실 도착하는데 까지 채 1시간도 안되는 신속한 대처와 그동안 혈압, 맥  
박, 이상 징후 체크하여 병원 응급처치 의료진께 이야기하는 모습  
경황중이라 어디소속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름표는 달고 있었지만 기억도 없고  
저희들에게 신경쓰지 말고 환자부터 돌보라는 말씀에 어머님을 응급실에 모시는 사이  
사람지신 119소방대원님들(탐문결과 [하동 진교 소방서](#)로 판명)

특히 4월3일 하동 진교 119 대원님께 이제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고마움이 아닌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세금낸 보람이 있고 아깝지 않다는 사실을...

덕택으로 노모께서 지혈과 수혈을 하고 심장 판막에 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REDACTED] 응급실 환우와 보호자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서 당일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절실하고 외롭고 난감할 때 도움이란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것을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쳐온 나 자신의 부족함과 앞만 바라보고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하동 진교 119 센터장이하 대원님들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힘써주신 소방대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파이팅입니다.

2018.4.4일 환자의 아들 강성중 드림

